

Spirituality of Donghak (Cheondogyo) and the De-Religionization of Religion: Focusing on Lee Donhwa

Hyejung Jung

Dongguk University WISE Campus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spirituality of Donghak in order to explore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religion in an age of non-religion.

[Contents] The spirituality of Donghak can be seen as having developed through Choe Jeu's concept of divine spirit (神靈), Choe Sihyeong's notion of mind-spirit (心靈), and Son Byeonghui's idea of spirituality (靈性). Choe Si-hyeong stated that 'Hanul (天)' is diversely manifested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of all things,' and that 'the spirit of the universe is the spirit of the multitude, the spirit of the multitude is my own spirit,' which he identified as 'my mind-spirit. Son Byeong-hui described this as 'the expression of the spirit in the universe' and 'the wondrous activity of the holy spirit,' introducing the new term Seongryeongchulse (性靈出世, the emergence of the spirituality). Lee Don-hwa further developed Donghak's spirituality by presenting the direction of future religion through the concepts of 'self-faith that trusts in one's own spirituality (自神),' 'the theory of religious unification,' and 'the de-religionization of religion'.

[Conclusions] The concept of spirituality in Donghak refers to the sacred power of the cosmic origin that constitutes and permeates all things, as well as the human mind-spirit. Today, it offers the insight that spirituality is the very essence of the universe, guiding human beings to realize that they themselves are both 'the history of the universe' and 'one body with the universe,' and to transform the present world into a paradise on earth.

[Keywords] Spirituality, Donghak (Cheondogyo), Lee Donwha, age of non-religi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1S1A5B5A16077800)

* **Corresponding author** Hyejung Jung (Research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WISE Campus)

E-mail : jhjnim@hanmail.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동학(천도교)의 '영성'과 종교의 비종교화: 이돈화를 중심으로

정혜정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갈등치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동학의 영성론을 살펴 무종교의 시대의 종교는 어떠한 의미와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학의 영성 개념의 연원을 탐색하고 천도교로 재편되면서 표방된 성령출세설과 이를 발전시킨 이돈화의 영성론을 탐구하였다.

[연구 내용] 동학의 영성론은 수운 최제우의 신령(神靈), 최시형의 심령(心靈), 손병희의 영성(靈性)으로 전개되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최시형은 ‘한울이 만물의 조직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으로서 ‘우주의 정신이 곧 역조의 정신이요 역조의 정신이 곧 나의 정신’이자 ‘나의 심령’이라 하였다. 손병희는 이를 “우주는 영의 표현”이자 “신묘한 성령의 활동”으로서 ‘성령출세’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돈화는 이러한 동학의 영성론을 발전시켜 ‘자신의 영성을 믿는 자신(自神)신앙’과 ‘종교통일론’, 그리고 ‘종교의 비종교화’로 미래종교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 동학의 영성 개념은 만물을 이루고 만물에 내재하는 우주 근원의 신령한 힘이자 인간의 심령을 의미한다. 이는 오늘날 우주 본체인 영성에 대한 깨달음, 인간 자신이 ‘우주의 역사’이자 ‘우주와 한 몸’임을 자각하고, 현세를 지상천국화하는 종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주제어] 영성, 동학(천도교), 이돈화, 비종교의 종교, 종교통일론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6077800).

Received November 19, 2025 / Revised December 07, 2025 / Accepted December 15, 2025

I. 서론

현대사회는 무종교인이 종교인보다 많고,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오늘날 종교는 자신들의 종교적 외피와 독단으로 이웃 종교를 배척하고, 맹신과 권위를 내세워 인간의 성찰과 수양을 통해 진리의 본질에 이르고자 하는 보편적 영성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와 양극화 문제, 분단극복의 시대적 과제에 필요한 대응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권력과 야합하거나 침묵하는 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종교는 어떠한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까.

120년 전 동학은 천도교로 개칭함과 더불어 종교로의 재편 속에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주로 ‘인간의 영성화’, ‘세상의 지상천국화’, ‘종교의 비종교화’, ‘진리추구로서의 종교론’으로 방향이 모아졌다. 동학이 1905년 12월 1일 천도교로 개칭되고 종교로 재편된 것은 정부로부터의 탄압을 벗어나고 일진회로 넘어간 이용구 세력을 축출하며 종교 자유시대에 부응하여 동학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함이었다. 이는 교단의 조직적 체계화를 도모하고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 후천개벽(後天開闢), 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이라는 동학 창도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1906년 2월에 반포된 「종령(宗令)」들을 보면 ‘교(敎)’의 목적을 사람의 본연한 ‘성령수련’과 ‘사회상의 정당한 규칙 준수’, 그리고 ‘인류사회(人界)에 타당한 학문 연마와 응용’에 두었다. 이는 곧 “영(靈)과 신(身)을 쌍방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영신쌍지(靈身雙持), 성신쌍전(性身雙全)을 말함이다. 신인합일(神人合一)의 영은 몸을 집으로 하여 깨달음의 지혜(覺慧)를 나타내고, 몸은 영을 갖추어 능력을 시도함에 농공상 등 사회대사업을 발달시켜 세계 인류가 함께 “대안(大岸: 새 세상)”으로 향상해 나아가는 것이었다(Lee, 2005: 13, 27).

또한 1910년 8월 15일 『천도교회월보』를 창간하면서부터는 신종교론을 논의해 나아갔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동학(천도교)의 전체적인 방향과 맥락하에서 야외 이돈화¹⁾를 중심으로 1910년대에 제기되었던 ‘영성론’과 ‘종교통일론’에 따른 ‘종교의 비종교화’에 초점 두어 그 의미를

1) 이돈화(夜雷 李敦化, 1884~1950)는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근대 철학자이자 동학(천도교) 사상가로서 1903년 동학에 입도하여 1904년 동학 민회단체인 ‘진보회’ 평의원으로 활동했다. 1911년 1월 『천도교회월보』 주간으로서 언론활동을 시작하였고, 1919년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 1920년 천도교청년회 조직을 주도하였으며 천도교 신문화운동을 이끌었다. 천도교 기관잡지 『개벽』을 창간하여 주간·편집인을 맡았고 1926년 폐간이 되던 같은 해에 『신인간』을 창간하여 편집인 및 발행인을 역임하였다. 또한 1925년 조선농민사 창립을 주도하여 『조선농민』 편집 겸 발행인 및 조선농민사 이사로 활동했다. 일제 말기 친일행적으로 인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 있기도 하다. 해방 이후에는 임시정부 영수 환국 전국환영회 서무부 위원, 이준열사추념대회준비회 발기인, 민주주의민족전선 준비위원에 이름이 올려졌다. 1946년 말 월북하여 청우당 활동을 하였고, 1950년 6.25 전쟁 당시 미군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무종교시대 현대사회가 나아가야 할 종교교육의 방향 모색에 시사점을 얻어보고자 하였다.²⁾

II. 동학의 영성 개념과 '성령출세론'

1. 동학의 영성 개념

동학에서 영성(靈性)은 '한울(天)'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인다. 이는 마치 불교에서 '불성'을 '영성'으로 일컫는 것과 같다.³⁾ 일반적으로 동학에서 영성은 신령(神靈), 허령(虛靈), 영(靈), 성(性), 혹은 성령(性靈)과 병칭되어 쓰이는데 해월 최시형은 '사람은 모두가 한울님의 영기(靈氣)를 모셔 사는 것이라'(Chondogyo Scriptures: 345)⁴⁾ 하여 한울님과 지기의 관계를 영과 영기의 관계로도 표현하였다. 영과 기운(氣)은 본래 둘이 아니다(Chondogyo Scriptures: 693). 영기(靈氣)란 수운 최제우가 말한 지기와 다르지 않고⁵⁾ '허령창창하여 만물에 깃들지 않음이 없고,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변화하여 스스로의 덕과 이치를 갖춘 천지의 힘'이다(Chondogyo Scriptures: 512). 의암 손병희는 '한울'과 '영(靈)'을 동일시하였고, 영성을 '성(性)'이라 지칭하였으며 성령을 정령(精靈)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여기서 정령이란 자연에 깃든 님프(nymph)나 요정(elemental)을 말한대기보다는 "본체의 지극한 영(體之至靈也)"을 뜻한다(Chondogyo Scriptures: 514).

또한 동학의 '성령(性靈)'은 기독교의 '성령(聖靈, Holy Spirit of God)'과 음은 같지만 뜻은 다르다. 동학의 영성론은 수운 최제우의 신령(神靈) → 최시형의 심령(心靈) → 손병희의 성령(性靈)으로 전개되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최제우의 신령은 천령(天靈), 허령(虛靈)과 함께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최시형은 성령(性靈)이라는 용어도 썼지만, '심령(心靈)'이라는 말을 비중 있게 사용하였다(Chondogyo Scriptures: 274, 297). 손병희는 최제우가 말한 '내유신령(內有神靈) 외유기화(外有氣化)', 그리고 최시형이 말한 '향아설위(向我設位)의 심령론'과 '일리만수

2) 본 연구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근대 시기 천도교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한 사례로서 이돈화의 신종교론을 살펴 본 고건호, 고대 중국의 천인합일 사상을 통해 천도교의 영성 개념을 살펴 본 김남희, 그리고 이돈화의 글 「장래의 종교」를 분석한 조성환·이우진, 2020: 63-86).

3) 예컨대 지눌의 선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중국 화엄종 5대 조사, 규봉 종밀(圭峰宗密, 780-841)은 '불성(佛性)'을 '영성(靈性)'과 병칭하였다(규봉 종밀, 신규탁 역주, 2024: 120-121, 297).

4) 이하 원문 인용은 현대문으로 약간 수정함.

5) 동학 경전에서 영(靈), 성(性), 영성(靈性), 성령(性靈), 정령(精靈), 심령(心靈), 이 모두는 '만물을 이루는 우주근원의 신령한 기운'으로서 한울의 다른 명칭이라 할 수 있다.

론(一理萬殊論)’을 바탕으로 「성령출세설(性靈出世說)」로써 영성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손병희는 “만수(萬殊)는 일리(一理)이며 만법(萬法)은 일묘(一妙)”라는 최시형의 ‘일리만수론(一理萬殊論)’에 따라 “우주는 영의 표현”(Chondogyo Scriptures: 653)이라 하였다. 원래 해월은 만상(萬像)이 모양은 각기 다르나 그 이치는 하나로서 “한울(天)이 만물의 조직에 의하여 표현”됨이요, 그 “표현이 만물의 조직에 따라 각각 다름”이라 하였다. 이는 마치 “동일한 비와 이슬에 복숭아 나무에는 복숭아가 열리고, 오얏나무에는 오얏이 익어가는 것과 같다.” (Chondogyo Scriptures: 413). 이에 손병희는 만물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은 그 ‘신묘한 성령의 활동이 만 가지로 표현된 것’이요, 인간과 만물의 만기만상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곧 ‘성령(性靈)’이라 하였다. 우주는 한울의 표현이자 영의 표현이다. 동학이 천도교로 재편되면서 영성을 부각시킨 것은 새로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만물마다 각각의 성품을 이루는 것은 신묘한 성령의 활동이 만기만상에 따른 것이다. …… 비 유하면 같은 비와 이슬에 복숭아는 복숭아 열매를 맺고, 살구는 살구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Chondogyo Scriptures: 655).

우주는 영의 다양한 표현으로서 영의 적극적 표현은 유형(有形)으로 드러나고, 영의 잠재적 이치는 무형(無形)이다. 형상으로 드러나는 유형은 영의 나타남이고, 형상이 없는 무형은 영의 잠재라 할 수 있다. 손병희는 한울과 사람이 형상이 있는 한울과 형상이 없는 한울의 구별일 뿐이기에 한울이 곧 사람이요, 사람이 곧 한울인 관계로서 천지만물은 시대 억조와 함께 진화해 나아감을 말하였다. 또한 ‘영’과 ‘우주 만유(세상)’는 동일한 이치의 두 측면이기에 영과 사람, 우주 만물 역시 서로 분리될 수 없다 하였다.

대인의 덕은 천지와 더불어 함께 영성이 활동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한울과 우리 신사는 형상이 있고 형상이 없는 구별이 있을 뿐이요, 그 영성의 계기로 보면 온전히 동일한 범위, 동일한 활동과 표현이 된다. 이는 사람이 곧 한울이요, 사람이 곧 한울인 관계이다. 천지만물은 한가지로 순응하여 시대 억조와 함께 진화하기에 그 심법은 결코 인간을 떠난 것이 아니요 온전히 세상과 합치되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Chondogyo Scriptures: 658).

2. 성령출세론(性靈出世論)과 「향아설위(向我設位)」

동학의 영성론은 수운 최제우의 「내유신령」에서 → 해월 최시형의 「향아설위(억조의 정신이 곧 나의 정신)」로 → 그리고 의암 손병희의 「성령출세(우주는 영의 표현)」로 이어지는 계보 속에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최시형은 ‘부모의 심령은 한울님으로부터 몇만 대를 이어 나에게 이른 것이고, 부모가 죽은 뒤에도 심령과 정신은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이므로 제사를

받들고 위패를 설하는 것은 그 자손을 위하는 것이 본위'라 하였다(Chondogyo Scriptures: 349). 이에 손병희는 최시형이 말한 심령을 '혼원한 영'(Chondogyo Scriptures: 512)이라 일컬었고, "우주의 정신이 곧 억조의 정신이요 억조의 정신은 곧 나의 정신"(Chondogyo Scriptures: 656-657)이며 죽은 조상의 정령과 스승의 정령 모두가 후대 사람의 정령 속에 다시 융합되어 활동한다는 의미로써 「성령출세설(性靈出世說)」을 전개하였다.

이전 시대 억조의 정령은 후대 억조의 정령이 된다는 점에서 조상의 정령은 자손의 정령과 융합하여 표현되고, 이전 스승의 정령은 후학의 정령과 융합하여 영원히 세상에 나타나서 활동함이 있는 것이다(Chondogyo Scriptures: 657).

성령출세란 영성의 활동이다. '억조의 정령이 자손의 정령과 융합하여 표현되고, 스승의 정령 역시 후학의 정령과 함께 융합하여 세상에 나타나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정령은 성령을 의미한다. 손병희는 "나의 영은 우주의 영"이기에 "내가 신인(神人)임을 잊고자 해도 잊을 수 없으며 신(神)에 접하고자 아니하여도 불가하다." (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95, 1918: 14)하여 영성을 인내천의 신인(神人)으로도 개념 지었다. 그는 어느 날 양산 통도사에서 수련할 때, 그 인근에 있는 수운 최제우의 수행도량(적멸굴)을 방문하였다가 활연히 「옛적에 이곳을 보았는데 오늘 또 다시 보는구나」라고 시(詩)를 읊으면서 이는 "대신사의 옛적과 나의 오늘이 성령상 같은 심법(心法)" (Chondogyo Scriptures: 659)임을 말하는 것이라 했다.⁶⁾ 심법이란 인내천의 마음, 깨달은 한울님의 마음, 혹은 신인(神人)을 뜻한다.⁷⁾ 손병희는 최시형이 수운의 '인내천'의 심법을 받아 '향아설위의 제사법'을 정하였다고 하였는데, 향아설위는 우주의 정신이 곧 억조의 정신이고, 억조의 정신이 곧 나 한 개체의 정신인 것을 밝힌 것이라 하였다 (Chondogyo Scriptures: 656-657).

한편 이돈화는 의암의 시구(詩句)를 '황홀 체험'이자 '대각의 순간'으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의암이 「대신사성령출세설」을 공포(公布)"하게 된 것이며 이는 곧 수운 최제우의 생사관(生死觀)인 장생불사설(長生不死說)을 실제로 증명한 것이라 하였다(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95, 1918: 13). 또한 그는 수운의 성령이 이 세상에 표현된 것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각성케 하고 감화시키는 것이기에 세계 안에서 활동하는 대신사의 성령이 우리의 '직접활동'이 되도록 하여 그가 선언한 일체의 책임인 포덕천하, 광제창생을 자담(自擔)하자 하였다 (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96, 1918: 16). 여기서 대신사의 성령이 나 자신을 각성케

6) 손병희는 1909년 12월 양산 통도사 내원암에서 기도를 마친 뒤 지난날 수운 최제우가 49일 기도를 한 적이 있는 적멸굴을 찾았다. 「성령출세설」은 의암이 적멸굴에 다녀온 후 지은 글이다. 이돈화는 의암 손병희가 쓴 「성령출세설(性靈出世說)」을 재해석하여 「대신사성령출세설」을 1918년 7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 『천도교회월보』에 연재하였다.

7) 심법의 전수는 선불교의 이심전심(以心傳心)과도 유사한 구도라 할 수 있다.

하고 감화시키며 나 스스로가 대신사의 성령 활동이 되도록 하자는 것은 ‘억조의 정령이 자손의 정령과 융합하여 표현되고, 스승의 정령 역시 후학의 정령과 함께 융합하여 세상에 나타나 활동’하는 성령출세설에 따른 주장이다. 이는 신인(神人)을 이룬 수운 최제우를 신앙의 대상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궁극적 깨달음을 이루면 신인(神人)이요 이미 신인을 이룬 대신사가 바로 자신의 영성이라는 것을 말하여 신앙의 대상을 우주의 중심이자 정신적 중심인 각자의 마음속에서 구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돈화가 말하는 영성의 신신앙은 자신(自神)신앙이다. 우리가 자신의 영성을 자각하고 각자의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순간, 자신이 곧 ‘한울’이고, ‘신(神)’이 된다. ‘무량한 진공(眞空)’을 깨달음에서 발현하는 신인출세(神人出世)요, 영성이기에 자신의 마음과 영성을 떠나 따로 신앙의 대상을 설정하지 않는다.

대신사 말하기를 「티끌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더될 것을 염려하라」 하였고, 성사 말하기를 「무량한 眞空이 깨달음에서 발현한다」 하였으며 또한 말하기를 깨달은 자는 산 것이요 깨닫지 못한 자는 죽은 것이라 하였으니 오인은 이 각(覺) 한 글자으로써 곧바로 신인출세(神人出世)를 인식하리라 단언하노니. …… 「춘삼월 호시절」이라 함은 오인 자각(自覺)의 시절이며 「또다시 상봉」이라 함은 오인 자각의 찰나인저. 오인은 곧 天이며 오인은 곧 神이니 “오만년 노이무궁”의 天에 책임과 “포덕천하 광계창생”인 신인(神人)의 책임은 곧 오인의 두 어깨에 부담된 문제이며 …… 오인은 神人을 믿되 각 자아의 마음(方寸) 속에 구하라. 이것이 실제적 신앙이니 오인은 이 정신적 중심을 떠나 따로 신앙의 목적을 구함이 불가하며 ……(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96, 1918: 15-16)

성령출세는 곧 신인출세(神人出世)라 해도 무방하다. ‘신인출세’는 다름 아닌 ‘각(覺)’ 한 글자에 있다. 이돈화는 신인출세를 불교의 깨달음과도 연결지었다. 누구든지 깨달은 자는 ‘신인(神人)’일 뿐만 아니라 ‘붓다’요 ‘대신사’이다.

깨달음이 곧 붓다(覺則是佛)라 하였으니 누구든지 하루아침에 쪽정(妄批)을 해탈하는 날은 그것이 곧 대신사이니 한 사람이 깨달으면(覺) 한 사람의 대신사가 있을 것이요, 백인이 깨달으면 백인의 대신사가 있을지며 천만인이 각하면 천만인의 대신사가 있을지니 대신사는 곧 깨달음(覺)이요 깨달음은(覺)은 곧 대신사임을 잊지 못할지어다(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96, 1918: 16).

이돈화가 말하는 영성은 인격적이라기보다는 불교의 법신에 가깝다. 이돈화는 성령출세를 “영적(靈的) 법신(法身)의 활동”⁸⁾으로도 설명하였는데(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95,

8) 영적 법신은 영묘불사의(靈妙不思議)하고, 영원무궁하며 우주의 시공을 융섭한 ‘영적 활동’을 나에게서 나타내는 것이고, 사후의 영성은 우주 영으로 환원되어 다시 만물로 표현되는 순환과 향상을 거듭한다.

1918: 12), “영적 범신”은 모두가 동일하기에 “수운의 전신(前身)은 성사의 후신(後身)이며 성사의 후식(後識)은 신사의 전식(前識)”이 된다.⁹⁾ 따라서 “대신사의 사후 영체(靈體) 활동은 금일 성사의 영좌(靈座, 영이 모셔진 심령)를 통하여 계속”됨이요, “수운의 몸은 없을지라도 그 범신은 성사(聖師, 의암 손병희)의 색신(몸)을 도와 동일활동을 암암리에 실행”하는 것이다.¹⁰⁾

III. ‘영성’의 ‘공성(空性)’

손병희는 수운의 심법(心法)을 받고, 성령수련의 결과로 자신의 성령이 곧 수운의 성령임을 깨달을 것이라 하였는데, 성령의 근본적 출세는 또한 “불생불멸(不生不滅), 무루무증(無漏無增)”(Chondogyo Scriptures: 660)이라 하였다. 규봉 종밀 역시 ‘불성(佛性)’을 ‘영성(靈性)’과 병칭하여 영성이란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不生不滅), 줄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 것(無漏無增)’이라 말하였다(Jongmil, Shin trans., 2024: 120-121). 의암과 종밀이 말하는 ‘불생불멸’, ‘무루무증’으로서의 영성은 ‘공성(空性)’으로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불생불멸, 무루무증은 원래 불교 용어인데, 이는 마치 공중의 달이 보름달, 초승달, 반달, 그믐달로 변화하지만, 새로 생겨난 것도 없어진 것도 늘어난 것도 줄어든 것도 아닌 것과 같다. 본체와 현상이 상즉할 수 있고 다양한 현상이 중중무진 변화할 수 있는 것은 공성(空性)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종밀이 말하는 영성은 우주근원으로서 “신령하게 밝고 공적(靈明空寂)”하다(Jongmil, Shin trans., 2024: 297). 손병희가 말한 ‘공적활발(空寂活潑)’과 종밀의 ‘영명공적(靈明空寂)’은 공성으로서 서로 맥락을 같이한다.

성심의 본체는 …… 모습도 없고 虛와 같고 空과 같아서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고 버리려고 하여도 버리지 못하며 왕래가 자재하여 항상 머무름이 없고 미묘해서 보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사람 스스로 능히 움직이고 스스로 작용하는 것이다. …… 성심수련에는 반드시 묘법이 있으니 깨닫고 깨달아서 혼매하지 말 것이다(惺惺不昧). 마음이 본연성에 들면 공공적적(空空

영적 범신은 사람의 정신을 영감으로 감응케 한다.

9) 여기서 전식과 후식의 식(識)은 불교의 ‘아뢰야식’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모든 우주 생명의 경험이 인간에게 내장되어 사람의 인식활동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의암은 『후경』에서 이를 “영식(靈識)”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10) 이돈화가 말한 ‘대신사 성령출세설’은 인내천의 심법을 전수받아 “수운의 영으로서 자신의 영과 합일되어 무궁의 진리를 깨닫게 함”에 방점이 놓이고 한울의 영감을 이어가는 영적 감응을 수반한다. 통도사 적멸암에서 수련하였던 수운 최제우와 오늘의 의암 손병희는 세월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시구의 감응(感應)이 생긴 것은 수운의 몸과 의암의 몸이 서로 다를지라도 수운의 영성이 의암의 영을 부지불식간 통일하고 각성케 하며 유도하기 때문이다.

寂寂)하고 본연성이 마음속에 들면 활활발발(活活潑潑)한 것이니 공적활발은 자기 본성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自性自心은 내 마음(吾心)의 본 바탕이니 도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반드시 나의 마음에서 구할 것이다(Chondogyo Scriptures: 500-502).

‘공성(空性, Śūnyatā)’이란 공(空)한 가운데 현현되는 참된 본성[眞性], 신령한 본성[靈性]을 뜻한다. 의암은 “성리(性理)는 비고 고요하여(空寂) 자체(自體)에 크게 활동할 만한 동기가 감추어져(秘藏) 있다”하였고(Chondogyo Scriptures: 455), 나의 본체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영묘영적(靈妙靈迹)이라 하여 본체가 단순히 공적한 것만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공(空)은 본래 공한 것이 아니요”, “성령의 본체는 불생불멸(不生不滅) 무가무감(無加無感)하면서도 원원충충(圓圓充充)”하다(Chondogyo Scriptures: 646). 이돈화는 이러한 의암의 영성론을 계승하여 우주 근원을 ‘무량한 진공(眞空)’으로 표현하였고, 그 역시 영성의 본체는 불생불멸(不生不滅), 무루무증(無漏無增), 무선무악(無善無惡), 무시무종(無始無終)한 참 진리[眞諦]로서 인과율에 따라 영접의 진화운동을 성립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우주는 무시무종의 본체로 영접의 진화운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인류가 그의 최종 결정(結晶)이라 할 것 같으면 우주는 원래 개체적 인격적 상체가 단시일간에 이를 줄연간(猝然間) 창조한 것이 아니요 우주는 우주 그 자체가 무궁무한히 변천하는 가운데서 성운(星雲)이 생하고 태양계가 조직되며 지구가 형성하며 마침내 인류가 표현된 것임이 명백하다(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128, 1921: 4).

영성은 비고 공한 것이어서 보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고 작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영성은 본래 온 곳도 없고(無來), 나라 할 것도 없지만(無我) 없는 것 또한 아니다(Chondogyo Scriptures: 747). 대우주의 진화는 인간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공성으로 말미암아 무궁무궁히 매진한다.

우주의 본체는 본래부터 불생불멸이며 무선무악이었다. 그리하여 우주의 본체는 곧 사람의 본체인데 사람성은 근본에서 불생불멸이며 무선무악한 본질로 대우주의 진화율을 사람 자기성의 가운데 포용하여 가지고 무궁 무궁의 대목적을 매진하는 자라 하리라(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128, 1921: 6).

요컨대 의암이 말하는 영성은 공(空)과 같이 실체가 아니면서도 불생불멸, 무선무악이면서도 무소부재(無所不在)하고 무사불명(無事不命)한 공적활발한 한울님이다. 공적활발은 인간 자신의 성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형체가 없는 공성(空性)이기에 볼 수도 없고 형용하기도 어려우며 얻거나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만물의 본연성이 공적활발이기에 스스로 움직이고 작용한

다. 만물과 한울은 둘이 아니요 한울은 만물과 만물이 상호 의존하는 대우주 생명이다. 공적활발(空寂活潑)한 사람의 성령은 곧 “대 우주의 영성을 순연히 타고난 동시에 만고억조의 영성이 하나의 계통으로 이 세상의 사회적 정신”이 된다(Chondogyo Scriptures: 656).

한편 의암은 불교와 동학의 차이점을 ‘공계(空界)’와 ‘공기(空氣)’로 설명한 바 있다. “불교는 공계(空界)에 마음을 보내는 도통(道通)에 비중을 두지만, 오도(吾道)는 무형이면서 자취가 있는 조화”(Chondogyo Scriptures: 741)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공계란 마음이 공적한 경지가 되는 것을 말하고 공기란 영기(靈氣)와 상통하는 개념이다.

만물이 각각의 이치로 발현하여 공기로 형용을 이루며 사람의 생각과 학문이 이치로부터 비롯하여 공기로 활동하니 이치와 공기는 안팎을 이루는 양면과 같다. 공기에 근본하여 이치가 생겨나고 이치는 공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요점이다. …… 한울과 세상은 하나로서 만물이 생기기 전과 생겼다가 없어진 뒤는 모두가 한울이요 형상이 있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다 (Chondogyo Scriptures: 797-801).

사람이 본래 청정하고 참된 영성(眞性)을 깨닫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한울을 깨닫는 자천자각(自天自覺)을 뜻한다. 의암은 우주 만유가 ‘영의 표현’이기에 나의 본연성인 영성을 깨달으면 수운의 영과 나의 영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고 말하였다. “인간 각자가 성령의 본체를 깨달으면 곧 수운 대신사요 우주 영이며 이를 깨닫지 못하면 범부”이다(Chondogyo Scriptures: 649).

IV. 이돈화의 영성적 신(新)신앙과 종교의 ‘비종교화’

1. 영성의 ‘사회적 정신’과 ‘장생불사(長生不死)’

의암 손병희는 「성령출세설」에서 ‘사람은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한 자로 사람의 성령은 대우주의 영성을 순연히 타고난 것임과 동시에 만고억조의 영성은 오직 하나의 계통으로서 이 세상의 사회적 정신이 된 것’이라 하였다(Chondogyo Scriptures: 656). 성령출세란 곧 “사회적 정신의 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돈화는 의암이 말한 사회적 정신을 일컬어 “고금을 횡단한 구체적 진리”요, “생사관의 근본적 바탕이 되는 것”이라 하여 이를 자신의 ‘현세천국의 생사관’으로 전개시켰다(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98, 1918: 15).

이돈화에 의하면 영성의 ‘사회적 정신’이란 공간으로는 전 세계를 포용하고 시간으로는 억겁의 세월을 유전하여 오늘날 각각의 개성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인간 개성에는 우주 생명

전체의 시공적 경험이 잠재적(潛勢的)으로 저장되어 있고 현실의 환경과 수많은 관계에서 개성적 정신들이 상호 융화하여 드러나고 활동한다. 이는 현재에 우주 역조의 정신이 개성적 정신과 상호 융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영겁의 개성적 정신이 오늘에도 의연히 이 사회적 정신 중에 흘러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 정신은 한 시대의 개인과 사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적인 역겁 역조의 우주 생명 전체를 포괄하는 정신이다.¹¹⁾ 또한 각기의 개성이 진화할 수 있는 것은 실로 이 사회적 정신이 융합되어 일어나는 것이기에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 정신은 무규칙의 융화가 아니라 각기 일정한 순로(順路)가 있어 이를 따라 각각의 융합을 형성한다는 것이 이돈화의 주장이다.

사회적 정신이라 함은 우주 생명의 개성과 개성적 정신이 호상융화하여 활동함을 말함이며 그리하여 이 사회적 정신은 무규칙적으로 융화하는 것이 아니요 각자 일정한 순로(順路)가 있어 이에 각기 단결이 생하는 까닭을 말하였거니와 대개 사회적 정신은 공간으로는 전 세계를 포용하고 시간으로는 전만고(前萬古)를 유전함에 따라 금일 오인의 개성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니 예컨대 오늘날의 문명은 단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바가 아니요, 장구한 문명의 주류를 근원하고 흡수하고 증류하고 단련하여 그 정신 광채를 그대로 잡아 얻어 옴으로써 이를 활사회에 발휘한 것이로다 (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98, 1918: 15).

성령출세로서의 사회적 정신은 죽은 나무처럼 침잠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活) 사회’ 안에서 ‘무궁한 한울’, ‘만물의 활원(活源)’이 되는 효력을 발휘한다(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98, 1918: 15). 따라서 “천당과 극락은 결코 세상 밖 다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온전히 사회적 정신을 칭하는 것”이며 천당과 지옥은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정신이 곧 천당이며 지옥이요, 동시에 나의 개성적 정신이 천당이며 지옥”이다. 천당과 지옥은 우주 밖, 어떤 공간에 있지 않다. 천당과 지옥은 인간 마음에 있고 인간 마음에 융합되는 사회적 정신에 있다. 만약 “전 세계의 인민이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를 수행하여 해탈을 얻는다든지 십계명과 신의 아들을 신앙하여 참된 위안을 얻었다 하면”, “개성적 정신은 실로 천당·극락에 들었다 할 것”이다(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98, 1918: 16).

이돈화는 종교가의 본질이 ‘세계의 경쟁을 쉬게 하고 평안을 얻고자 함에 있다 할 때, 세계가 일체 평등한 안온에 있다 하면 종교가는 이를 가리켜 천당이라 하며 극락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던져 세계가 평화의 극락 중에 들어가고 자손만대가 복을 구가한다면 자신의 정신은 ‘영체(靈體)’로써 사회적 정신으로 흘러가 미래의 정신 안에서 함께 즐거움을 향수할 것이라 하였다. 여기에 이돈화의 영성적 생사관, 현세천국의 생사관

11) 손병희의 ‘사회적 정신’은 불교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진망화합식(眞妄和合識)’, K. 융의 ‘집합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 혹은 R. 도킨스의 ‘밈(meme)’과도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겠으나 간극은 존재한다.

이 놓여있다.

가령 나의 부조(父祖)의 정령이면 그 부조(父祖)의 정령이 결코 인간 사회를 떠나 천당 혹은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그 자손의 정신 안에서 흘러갈지라. 그러므로 제사함에는 ‘나의 정신내념(精神內念)’을 향하여 제사함이 옳다 함이며 또한 스승의 정령(精靈)이면 반드시 그 심법을 받은 제자의 정신내에 유익(遊弋)할지라. 그러므로 제사함에 또한 이 나의 정신내념(精神內念)에 향하여 제사하라 함이니 그러면 오교의 사후관은 철두철미 이 사회적 정신을 근거로 한 것이며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이 사회를 떠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이 사회적 정신이 곧 천당이며 지옥이 오 동시에 나의 개성적 정신이 천당이며 지옥일지라(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98, 1918: 16-17).

천당과 지옥은 사회적 정신이자 나의 개성적 정신이다. ‘개인의 정신’과 ‘사회적 정신’은 동일체로서 인간 개체에 선악이 함께 내재해 있는 것처럼 사회적 정신에도 선악이 공존한다.¹²⁾ 사후도 역시 이와 같아서 생전에 정신조작이 악이던 자는 필연으로 악인의 정신 안에 귀속할 것이며 선한 정신이 승하던 자는 선인의 정신 안에 귀속하게 될 것이다. 세계는 선악의 전쟁터이다. 선의 세력이 승하여 일세를 점하면 이를 천국이라 할 것이므로 “천국은 상제의 나라가 아니요, 적나라한 인생의 나라”이다(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98, 1918: 17).

또한 이돈화는 성령출세에 따른 장생불사관¹³⁾을 제기하면서 이를 철저히 이해하여 신성한 삶의 ‘대의식’을 이루자고 하였다. 장생불사란 불사약, 공을, 영부로 상징되는 최후 진리를 지칭하고, 성령출세를 통해 현세를 천국화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현세 천국이란 “세계를 천국의 전체로 보고, 인류가 천민(天民)의 기초를 이루어 상호 충돌, 모순, 경쟁이 없이 일체 평등한 융화 가운데서 행복 있는 생활을 지속”하는 지상천국을 뜻한다. 수운이 「강시(降詩)」에서 “삼칠자를 그려내니 세간의 마(魔)가 모두 행복하네”라 한 것도 “세간의 모든 악과(惡果)를 항진(殫盡)하여 선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도파한 것이고, “개개인이 자기 한울(自天)을 자각하고 일체의 모든 일을 자기 한울(自天)의 명령 하에 좌우되면 이것이 곧 선(善)의 시조”요 성령출세가 되는 것이라 하였다(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99, 1918: 17).

12) 영성의 본체는 불생불멸, 무루무중, 무선무악이지만 작용(현상)으로 드러나는 역겹 역조의 정신은 진(眞)과 망(妄), 선과 악이 함께 한다. 불교에서 마음은 하나이나 두 개의 길(청정한 마음과 무명의 마음)로 나누이고, 청정한 마음의 힘이 강하면 무명의 마음은 멈추어지는 것과 같다.

13) 이돈화는 수운 최제우가 『동경대전』 곳곳에서 말한 장생불사에 근거하여 동학의 생사관을 제시하였다. 「포덕문」에서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 …… 너 또한 장생하여 천하에 덕을 펼칠 것”이라 한 것, 「논학문」에서 “너는 무궁무궁한 도에 이르렀으니 …… 너로 하여금 장생케 하여 천하에 소연(昭然)하리라.”한 것, 「수덕문」 가운데 “가슴에 불사약이 감추어져 있으니 공을은 그 형상이요 입으로 송주하니 장생주문 21자라”한 것, 또한 「탄도유심급」에서 “공이 이루어지는 날에 신선의 인연(仙緣)을 지을 것”이라 한 것 등이다(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99, 1918: 16).

세상은 선악의 지속이다. 과거 억조의 선이 현대 억조의 선과 결합하여 더욱 행복을 도모하고, 과거 억조의 악이 현대 억조의 악을 보조하여 더욱 고통을 사는 장생불사의 현장이다. 삶과 죽음은 형태를 달리하는 장생불사로서 인간은 현세 천국을 건설하는 주체이다. 이돈화는 인류의 개성적 정신과 사회적 정신, 두 측면이 역사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지상천국이 건설되어 갈 것을 말하였다(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100, 1918; 19-20).

2. 영성의 '종교통일론'과 종교의 '비종교화'

이돈화는 손병희의 언설을 “종교통일론의 발생”, “영성적 신앙의 발흥”, 그리고 “통일적 종교(종교의 비종교화)의 신기운”으로 요약하면서 이를 대표적인 ‘신신앙의 현상’으로 제시하였다(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102, 1919: 1-2). 구신앙은 매우 완고하고 편색(偏色)되어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만이 절대 진리라 주장하고 타인이 믿는 바는 일체가 허위라 하여 서로 배척·공격한다. 그러나 인문이 진보한 결과 이러한 구신앙이 쇠퇴하고 종교통일론이 발생하는 것이 필연의 대세라는 것이다.

또한 신앙은 자유로서 인지가 진보함에 따라 ‘새로운 각오(覺悟)’, ‘새로운 영성적 깨달음’을 생겨나게 하는 ‘신성한 공뇌(公腦)’가 있는 까닭에 신신앙을 발흥시킬 것이라 하였다. 인류는 동일한 천부의 본성을 지녔기에 현우(賢愚)의 차별이 있을지라도 대체적인 ‘공통적인 의식(사회적 정신)과 지능’이 있고(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102, 1919: 6), 종교에 대한 공뇌도 이로부터 발달하기에 비록 자기의 신앙하는 바가 아니어도 공평한 의식하에서 이를 진리로 인정할 것이라는 것이 이돈화의 주장이다. 사회적 정신은 개인에게 깃든 우주 억조·억집에 걸쳐 흘러온 개성적 정신의 총합을 말하고 부분으로부터 전체로 돌아가기에 공뇌란 부분적인 “각방면의 활동이 일체로서 통일적 관념하에 수납(受納)”¹⁴⁾되는 것을 말한다(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102, 1919: 3).

한편 종교사적으로도 신앙성의 발달은 다신시대-일신시대를 거쳐 조화시대로 진화하므로 이 역시 종교통일의 발생원인이 된다. 과학의 극단과 대경쟁에 대한 반동으로 장래 “종교평화의 열망”이 일어났고(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102, 1919: 4), 사회의 근본적 개량은 불가불 종교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기에 세계의 대세는 신신앙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후관을 보아도 천당설, 윤회설, 유령설, 적멸설 등 다양하지만 이 모두가 “동일 진리를 각 방면으로 모사한 것”이기에 인문이 진보함에 따라 융화·통일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은 자연스런 이치이다(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97, 1918: 18). 이돈화는 이러한 신 기운이 유행함에 따라 장차 참과 거짓을 취사선택하여 일대(一大) “통일적 종교”를 조직할 “신의회(新議

14) 동학-천도교의 사유는 개인과 전체(사회)가 둘이 아님을 강조하고, 개인의 활동에 의해서 일체로서의 전체가 표현되어 가는 것을 지향한다.

會)”가 실현되리라 자신하였다.

사상의 융통은 점점 농후하여지며 지식인들은 필연적으로 각 종교를 한 자리에 모아 그 옳고 그름을 선택하여 어떠한 종교든지 참(眞)은 취하고, 거짓(虛)은 멀리하며 옳은 것(正)은 택하고 사된 것(邪)은 배척하여 모든 신앙의 진리로 일대(一大) 통일적 종교를 조직하고자 하는 신 의회(議會)가 이 지구상에 이상적으로 실현되리라 오인은 자신하는 바이로다(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102, 1919: 5-6).

이돈화가 제기한 종교통일의 ‘신(新)의회’란 각 종교가 한자리에 앉아 그 ‘옳고 그름’, ‘참과 거짓’, ‘바르고 사됨’ 중에 옳고 참되며 바른 것을 선택하여 모든 신앙의 진리로서 대 통일을 이루는 조직을 말한다. 이는 어떤 종교도 절대화될 수 없으며 모든 종교는 오직 부분적 진리를 표방할 뿐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종교란 시대를 반영하여 성립된 것이므로 과거의 종교는 현 시대에 와서는 부분적 진리가 되는 요소가 있고, 경전내용도 과거 시대의 지혜를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기에 현대에 와서는 맞지 않는 낡은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돈화는 만약 천도교를 종교라 일컫는다면 이때의 종교란 제반 문화를 포용하면서도 이를 혁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낡은 구문화를 변혁하고자 나온 문화혁명”을 뜻한다고 하였다(The New Humanity 15, 1927: 3).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붓다, 공자, 마호멧은 당시의 ‘신종교 혁명가’이자 ‘문화혁명가’였다. 신종교란 구종교를 포함한 낡은 문화를 변혁하고자 나온 ‘신문화운동’이다. 각 시대마다 당시의 제반 생활을 혁신하기 위하여 일어난 운동이 곧 종교요 종교는 곧 신문화운동 이기에 종교는 시대마다 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울님은 무궁히 무위이화를 통해 진화하는 것이기에 진리 역시 진화하는 것이고 이전 것은 부분적 진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종교통일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떠한 사상에서든 반드시 공동으로 “통과할 만한 진리가 있는 연후에야 실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돈화는 그 통과할 만한 진리에 가까운 것이 바로 ‘자신신앙(自神信仰)’, 즉 ‘인내천주의’라 하였다(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103, 1919: 2). 자신의 심령(神)을 믿는 자신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각자 자신 안에 있는 ‘영성적 신앙’이고, 그 심령적 존재로 들어가면 모두가 일체가 되는 근원에 이르게 되며 모두에게 통과가 될만한 진리에 서는 것이기에 자연히 각 종교의 진리가 하나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돈화는 수운 최제우가 『용담유사』에서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 하단말가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만 믿었어라”한 것도 “자기의 몸에 심령(心靈)이 있고”, “각기 자기의 몸에 모셔있는 자천(自天)을 신앙”함이기에 이는 만인이 부인하지 못할 만고의 대 진리가 될 것이라 하였다. 이돈화가 지향한 종교통일은 궁극적으로 종교의 민주화, 만인의 영성화를 지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심령이 곧 자기의 한울이 되어 자체의 일체 화복을 지배한다 함은 또한 만 민족에게 물어도 이를 진리라 말하지 아니치 못하리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허탄난신(虛誕亂信)한 고원의 설을 믿느니보다 우선 자기의 몸에 모셔있는 자신(自神)을 믿음이 가장正大(正大)하다 하면 또한 이를 부인할 자 만무하리라(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103, 1919: 3).

자신(自神)은 자기 한울(自天)이요, 자기 심령(心靈)이다. 진리는 고답적이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고 쉬우며 평범함에 있다. 만인, 만 민족에게 물어 공동으로 통과할 만한 진리는 곧 ‘자기 몸에 모셔져 있는 자신(自神)을 믿는 신앙’, ‘자기 심령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이 이돈화의 주장이다.¹⁵⁾ 이돈화는 “세계 인심이 점차 사상통일의 기운으로 발전하는 이때”에 장래의 종교 또한 필연적으로 ‘자신(自神)신앙주의’로 수렴될 것이고, “만인에게 물어도 만인이 함께 공동으로 통과할만한 영성적 신앙이 필경 최후에 승리를 얻으리라 자신”한다 하였다(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103, 1919: 8). 수운이 『동경대전』에서 “산하대운이 진귀 차도(산하의 큰 운이 이 도로 돌아올 것이다)”라 함도 세계 대운으로서 필연코 도래케 되는 종교통일을 말한 것이라 하였다. 이돈화에게 있어 종교통일은 새로운 종교이자 종교의 비종교화이다.

새로운 종교는 우주의 근본을 개인의 심령에 놓는 신신앙이 될 것이다. 우주 만유는 신이 제조한 것이 아니요 직접 신의 표현으로서 인내천의 진리는 종교, 과학, 철학, 천지우주의 대 이상을 포용하는 대 진리하에서 세계를 개조하는 신인합일의 영성이다. 따라서 장래의 종교는 ‘비종교화’로 나아갈 것이고, 인간의 의식이 진보함에 따라 “내면적으로 종교적 소질이 그 내용에서 자율적으로 자각”되며 그 심층에서 일체로 돌아갈 것이기에(同歸一體) 종교의 무궁성은 비종교(무종교)의 형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종교의 비종교성은 종교의 타락을 의미한 것이 아니요 신우주관 신인생관의 통일을 긍정하는 후천개벽의 예비조건”이다(Lee, 1931: 197-198).

V. 결론

동학의 영성은 ‘한울(天)’의 다른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동학에서 영성은 ‘만물을 이

15) 이돈화는 의암 손병희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신앙을 강조하였다. 최제우의 한울님 문답(天師問答)을 “만일 인격적 상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대신사를 가르쳤다 하면 어찌 안으로 강화의 가르침(內有降話之敎)이 있겠느냐?” 하면서 이는 곧 “자기로써 자체심령과 자문자답하신 진리”라 하였고, 최제우가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吾心即汝心)”이라 한 것도 “나의 마음이 곧 한울의 마음(自心即天心)이며 한울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天心即自心)”인 까닭을 도파(道破)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운이 “귀신이 곧 나(鬼神者 吾也)”라 한 것도 무량한 “억조의 심령이 모두 이 한울님의 한울님 된 까닭을 간절히 말하심”이라 하였다(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103, 1919: 7).

루고 만물에 내재하는 우주 근원의 신령한 기운'을 의미하였고, 허령(虛靈), 신령(神靈), 성(性), 영(靈), 성령(性靈), 정령(精靈), 심령(心靈) 등으로 병칭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천도교 시대에 와서는 성령수련과 영신쌍지(靈身雙持)가 강령으로 제시되는 만큼 이전의 동학 시기와는 달리 영성(靈性)이 전면에서 부각되었다. 영성의 개념은 최제우가 말한 '내유신령(內有神靈) 외유기화(外有氣化)', 최시형의 '일리만수론(一理萬殊論)'과 '향아설위(向我設位)의 심령론', 그리고 손병희의 '성령출세설(性靈出世說)'로 발전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제우는 '비고 신령한 영이 만유에 깃들어 명령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고, 최시형은 '한울이 만물의 조직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으로서 '우주의 정신이 곧 억조의 정신이요 억조의 정신이 곧 나의 정신'이자 '나의 심령'이라 하였다. 손병희는 이를 '우주는 영의 표현'이자 '신묘한 성령의 활동'으로서 '성령출세'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성령출세는 불생불멸(不生不滅), 무루무증(無漏無增), 무선무악(無善無惡)이자 공적활발(空寂活潑)로서 불교에서 말하는 공성(空性)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이돈화의 대신사성령출세설은 이러한 의암의 성령출세설을 재해석한 것이자 '자신신앙(自神信仰)'의 근거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영성을 자각하고 각자의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순간, 자신이 곧 '한울'이고, '신(神)'이 된다. 성령출세는 '무량한 진공(眞空)'에서 발현하는 신인출세(神人出世)요, 영성이기에 자신의 마음과 영성을 떠나 따로 신앙의 대상을 설정하지 않는다. 특히 이돈화는 의암이 성령출세를 '사회적 정신'이라 말한 것에 대하여 이는 "고금을 횡단한 구체적 진리"요, "생사관의 근본적 바탕"이자 '현세천국의 생사관'이라 말하였다. 영성의 '사회적 정신'이란 공간으로는 전 세계를 포용하고 시간으로는 억겁의 세월을 유전하여 오늘날 각각의 개성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정신'과 '사회적 정신'은 동일체로서 인간 개체에 선악이 함께 내재해 있는 것처럼 사회적 정신에도 선악이 공존한다. 만약 선의 세력이 승하여 일세를 점하면 이를 천국이라 할 것이므로 천당(극락)과 지옥은 현세를 떠난 어떠한 공간이 아니다. 사회적 정신이 곧 천당이며 지옥이요 나의 개성적 정신이 천당이며 지옥이다.

또한 이돈화는 당시 신지학(神智學)에서 종교통일론이 발생하고, 통일적 종교의 신 기운이 일어남을 말하면서 '종교의 비종교화'를 말하였다. 사람에게는 우주 본체인 영성이 갖추어져 있고, 깨달음을 생겨나게 하는 '신성한 공뇌(公腦)'가 있기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리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 정신과 개성적 정신은 분리될 수 없기에 각자가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각자가 우주 본체인 영성으로 돌아가 신인(神人)을 이루면 자연히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것이 이돈화가 말하는 종교통일론이다. 이돈화가 말하는 종교통일이란 누구에게나 통괄될 만한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통한 '하나 됨'을 이룸이다. 만인, 만민족에게 물어 공동으로 통과할 만한 진리는 곧 자기 몸에 모셔져 있는 자신(自神)을 믿는 신앙, 즉 자기 심령을 믿는 믿음에 있다. 이돈화는 이를 '자신신앙(自神信仰)', 즉 '인내천주의'라

하였다. 자신의 심령(神)을 믿는 자신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각자 자신 안에 있는 ‘영성적 신앙’이다. 영성적 신앙에서의 종교통일은 종교 간 경계를 넘나들고, 영성의 깨달음을 통해 모두에게 수용될 수 있는 ‘비종교화의 형태’를 말한다. ‘비종교화’란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울의 무궁한 진화에 따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간으로 나아가는 후천개벽의 조건이 된다. 동학(천도교)의 영성론은 오늘날 현대사회가 나아가야 할 종교교육의 방향에서도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그것은 우주 본체인 영성에 대한 깨달음의 교육, ‘우주는 영의 표현’으로서 인간 자신이 ‘우주의 역사’이자 ‘우주와 한 몸’임을 자각하는 전일적 교육, 영성수련과 현세를 지상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영신쌍전(靈身雙全)’의 교육을 모색해 가는 것이다.

참고문헌

[Primary Sources]

東經大全. *Donggyeong daejeon*.
 龍潭遺詞. *Yongdam yusa*.
 新人間. *The New Humanity*.
 義庵聖師法說. *Teachings of the Venerable Master Uiam*.
 天道教經典. *Chondogyo Scriptures*.
 天道教會月報. *Chondogyo Church Monthly Bulletin*.
 海月神師法說. *Teachings of the Venerable Master Haewol*.

[Secondary Sources]

Cho, S. H., & Lee, W. J. (2020). Lee Don-hwa's Discourse on Future Religion: Centered on the Interpretation of Son Byeong-hui,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80(3), 63-86.
 Go, K. H. (2005). Becoming-Religion and Transcending-Religion: Lee Don-hwa's Theory of New Religions, *Korean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Criticism*, 31, 42-71.
 Kim, N. H. (2011). The Meaning and Character of Chondogyo Spirituality Examin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Heaven and Huma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6, 193-216.
 규봉 종밀, 신규탁 역주 (2024). 화엄원인론 중화전심지선문사자승습도. 운당문고. (Translated in English) Gyubong Jongmil, Translated and Annotated by Shin, G. T. (2024). *Treatise on*

- the Original Person in Huayan, Diagram of Master - Disciple Succession in the Gate of Supreme Goodness for Harmonizing and Transmitting the Mind.* Seoul. Undang Collection.
- 이돈화 (1931). 신인철학, 천도교중앙종리원. (Translated in English) Lee, D. H. (1931). *Philosophy of the New Humanity* (新人哲學). Gyeongseong. Supreme Governing Council of Chondogyo.
- 이동초 편저 (2005). 천도교회 종령존안, 서울: 모시는사람들. (Translated in English) Lee, D. C. (2005). *Jongryeong(宗令) of Chondogyo Church* (天道教會). Seoul: Mosineunsaramdeul Publishing.